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no. 03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상상여행> 운영 기록

2025.3~12

주관: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 주관: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원문화재단 / 협력: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운영:(재)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사
이유림



올해 문화예술교육사로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했고 고등학교때부터 만화를 전공했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을 기획 하게 된 만큼, 제 전공인 만화를 프로그램에 잘 녹여내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이유림의 기록



“이야기를 찾아가는 상상 여행”을 기획하며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영월의 지역적 특색을 프로그램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었습니다. 기획 초기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영월의 방대한 설화 자원을 학습하며 이를 ‘만화’라는 매체와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 전문 강사 섭외부터 참여자 간의 연령 차이에 따른 난이도 조절까지, 기획자로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사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갔고, 우려와 달리 참여자들은 영월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해 주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작업에 임하는 이들의 모습 덕분에 수준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라는 참여자의 한마디는 그간의 고민을 보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월의 이야기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화 등)을 통해 사람들의 창의력·감수성·소통능력 등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월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실천

영월의 시간과 풍경이 천천히 겹쳐지는 자리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또 하나의 사유와 창작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국 각지의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예술가이자 교육가로서의 전문성과 감각을 갖춘 문화예술교육사가 현장에 직접 머물며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고유한 결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이 품은 시간과 사람, 공간의 이야기를 예술교육으로 번역해 보는 실험의 과정이자, 문화예술교육사 스스로도 현장 속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빚어가는 여정이다. 이러한 취지 속에서 영월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상상여행'이었다.

이 여행은 영월이라는 지역을 하나의 교과서처럼 펼쳐 놓고, 그 안에 담긴 자연과 인물, 역사와 공간의 이야기를 참여자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데서 출발했다. 익숙한 산과 강, 거리와 마을은 어느 순간 질문이 되었고, 그 질문은 다시 상상과 창작으로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정답을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영월을 읽고, 느끼고, 표현해보는 과정이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야기를 찾아 떠난다'는 개념은 프로그램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영월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여러 겹으로 포개진 공간이다. 프로그램은 이 복합적인 풍경을 하나의 해석으로 묶지 않고, 참여자 각자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 두었다. 누군가는 자연의 색과 결에서 영월을 읽었고, 누군가는 오래된 이야기와 인물의 흔적에서 이곳의 시간을 느꼈다. 그렇게 각자의 경험과 감각은 저마다 다른 영월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봄의 시작과 함께 출발해 겨울의 끝자락까지 이어진 이 상상여행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매 회차마다 영월의 풍경과 이야기를 천천히 들여다보며, 관찰하고, 나누고, 상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이 여정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동반자로 함께했다. 이 여행의 중심에는 공예 창작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영월의 장면과 감정을 손끝으로 옮기듯 작품으로 풀어냈다. 재료를 만지고 형태를 고민하는 사이, 머릿속의 이미지와 기억은 점차 눈에 보이는 이야기로 바뀌어 갔다. 그 작품들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각자가 바라본 영월과 그 순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기록이었다.

여정의 끝에는 결과공유회가 열렸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상상여행의 마지막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작품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발표나 전시가 아니라, 각자가 지나온 시간과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는 순간이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영월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진행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상상여행'은 지역과 예술교육이 만나는 방식을 섬세하게 보여주었다. 지역의 이야기는 교육의 소재가 되었고, 교육은 다시 참여자의 창작으로 이어졌다. 그 사이에서 문화예술교육사는 기획자이자 교육자,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현장 속에서 유기적으로 쌓아 올렸다. 이 영월의 상상여행은 거대한 변화를 남기기보다, 참여자 각자의 마음에 작은 질문과 오래 남는 기억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언젠가 다시, 영월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또 다른 창작으로 이어질 것이다.

굽이굽이 이어진 이야기의 길 위에서, 이 사업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지역과 함께 걸어갔다.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상상여행』

“아이들이 다시 쓰는 영월의 이야기”

영월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위와 물줄기, 별빛 아래 머무르던 전설들.
이야기를 듣는 건 과거를 마주하는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건 미래를 상상하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상상여행』은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과 함께한 10주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하나씩 만난 영월의 설화는 아이들에게 질문이 되었고,
그 질문은 그림과 조형, 글과 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 걷고,
상상으로 여행한 영월의 또 다른 얼굴.
그 기록을 지금, 함께 펼쳐봅니다.

“아이들이 다시 쓰는 영월의 이야기”

영월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위와 물줄기, 별빛 아래 머무르던 전설들.

이야기를 듣는 건 과거를 마주하는 일이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건 미래를 상상하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상상여행』은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과 함께한 10주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하나씩 만난 영월의 설화는 아이들에게 질문이 되었고,

그 질문은 그림과 조형, 글과 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 걷고, 상상으로 여행한 영월의 또 다른 얼굴.

그 기록을 지금, 함께 펼쳐봅니다.

지역, 이야기, 그리고 아이의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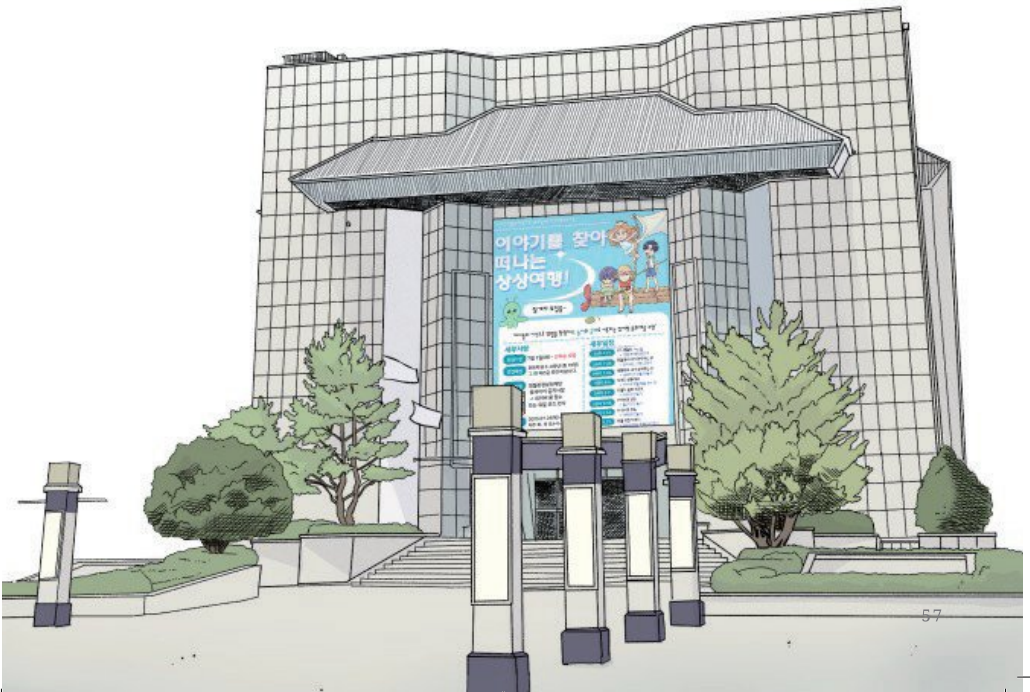
“설화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상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보는 이야기’로 다가갑니다.

각 회차는 영월 지역 설화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설화를 들은 후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설화 속 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제가 상상한 단종의 하늘이에요.”





주방사

금나라

미술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표현능력이 자라는 순간을 함께하는 미술강사 금나라입니다. 한국화를 전공한 뒤 아동미술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5년간 여러 학교에서 방과후 미술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아이들의 관심사와 발달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작품으로 표현하며 성취감을 경험하는 과정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해 온 가장 큰 동기입니다.

저는 창의적 사고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과 협력 경험 또한 미술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도하고 실패하며 새로운 표현방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수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미술학습법을 연구하고 학습자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수업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참여후기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함께 고민하며 만든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각자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주신 선생님과 주변 분들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협업의 가치와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보조강사

엄현정

이번 프로그램에 보조강사로 참여한 예비 사회복지사 엄현정입니다. 저는 평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경험들을 쌓을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후기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머니
김문담



할머니
강은서



할머니
안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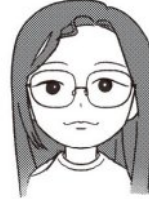
할머니
허진희



할머니
김문하



할머니
안하을



할머니
박채원



할머니
한승원



할머니
박주원



할머니
이지민



할머니
유지호



할머니
장유경



할머니
강민서



할머니
엄재원



할머니
엄운아



“영월은 상상 여행을 하기 딱 좋은 동네예요.”

“다음에도 전설 들려주세요. 제가 만들게요!”

“우리끼리 만든 영월은 진짜 멋있어요. 진짜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작은 손으로 만들고, 작은 눈으로 바라본 아이들의 영월은 다채롭습니다.
도깨비는 장릉을 지키고, 쌍룡은 강가에서 장난을 치고, 거북이는 저금통이 되어 마을을 지킵니다.

10주의 시간 동안 아이들은 이야기 속에 여행했고, 그 이야기를 창작으로 되살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눈으로 본 영월은 더 이상 ‘옛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 숨 쉬는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 호호

2025.01-12

저출산·고령화·핵개인화 등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간 이해·소통 활성화와 지역·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여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월문화관광재단

협력 : 영월군장애인문화복지센터, 덕포생활문화센터, 사소한 기록소, 영월마을선생님협의회



***가가호호: 가족이 함께하니 더 없이 좋아 웃음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함께 시작하는 마음

“우리는 영월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家加好好)”는

단지 예술을 가르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그리고 서로 다른 가족이 만나

서로를 알고, 느끼고, 기억하는 과정을 경험한 시간입니다.

올해 영월에서 가가호호는 총 10개의 정규 프로그램, 374의 홍보형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의 손끝에서 피어난 따뜻한 순간들을 지금 펼쳐보았습니다.





”예술은 연결입니다. 가족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일상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갸호호'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다시 바라보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핵가족화로 대표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 간의 대화와 이해는 점점 줄어들고, 세대와 지역 사이의 문화적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가갸호호'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가족이 다시 마주 앉고, 서로의 삶을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생활 가까이에서 예술을 경험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를 두었다.

본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며, 총 10개의 본 프로그램, 3회의 홍보형 프로그램, 그리고 한 해의 과정을 돌아보는 성과공유회로 구성되었다. 각 프로그램은 가족의 형태와 상황,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해 기획되었으며,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화예술은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하나의 언어로 작동했다.

본 프로그램의 시작은 사진을 매개로 가족의 시간을 되돌아보는(기억을 담은 사진)이었다. 참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순간들을 떠올리고, 그 기억과 정서를 사진으로 재연해보았다. 카메라 앞에 선 가족의 모습에는 웃음과 애함, 그리고 멀로 다 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거저졌다. 사진은 기록이자 대화의 계기가 되었고, 참여자들은 이미 지나온 시간을 다시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각자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인생터널 팝업북'을 제작하는 시간이었다. 종이를 접고 펼치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걸어온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책장 하나하나에는 기억과 감정이 담겼고, 완성된 팝업북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삶의 기록이 되었다.

항기를 통해 기억과 감정을 나누는 <엮임사람>은 추억을 향으로 표현하고, 상태를 떠올리며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항을 매개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웃과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항기를 감각을 열어주었고, 개인의 경험은 공동체의 공감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간은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고,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공간에서 만난 <농촌의 선율>은 기타와 가야금이라는 두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담아낸 프로그램이다. 연주 결과보다 함께 맞춰가는 과정에 집중하며, 참여자들은 서로의 호흡을 듣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가야금의 맑은 울림과 기타의 따뜻한 현은 농촌의 풍경과 어우러져, 소리로 관계를 엮어내는 경험을 선사했다.

<오감놀이터>는 그림책 감상을 시작으로 '꿈'을 주제로 가족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꿈사탕 스텐시 만들기와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오감을 열고 상상력을 확장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보호자와 아이가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난타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마음>은 난타의 이해와 해석, 난타북 활동을 결합해 구성되었다. 북을 두드리는 리듬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함께 연습하며 관계의 변화를 경험했다. 소리는 대화가 되었고, 리듬은 마음을 하나로 묶는 매개가 되었다.

장애가정을 대상으로 한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향수 만들기, 원예테라피, 공예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제작 경험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손으로 만들고 감각으로 느끼는 과정을 통해 자부심을 얻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각자의 감각과 경험을 나누며 채워가는 과정은 서로를 이해하는 또 다른 길이 되었다.

전통의 결을 느끼는 <소리로 엮는 우리 이야기 '한소리'>에서는 설장구 장단을 배우고, 장구의 율림과 공예 활동을 함께 엮었다. 소리와 손의 움직임이 만나는 순간, 참여자들은 전통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도 살아 숨 쉬는 언어임을 체감했다.

<꿈꾸는 작은 발레리나>는 발레와 친해지며 작은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우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과 리듬을 느끼며,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험을 했다. 비교나 경쟁 없이, 스스로의 움직임이 존중받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마지막 본 프로그램인 <쿠칭하모니>는 장애가족을 대상으로 한 베이징 활동으로, 시각·촉각·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제과 과정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과 속도로 작업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했다. 주방은 문화예술교육의 장이 되었고, 함께 만든 결과물은 관계의 기억으로 남았다.

이와 더불어 홍보형 프로그램은 사업의 시작과 확장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추억 한 조각>은 가정의 달 5월에 '가갸호호'의 문을 여는 자리로,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선선한 가을의 향이 아름다운 10월, <항기, 가족을 담다>는 우리 가족을 떠올리며 나만의 항수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짧지만 깊은 교감을 이끌어냈다. 10월, 김삿갓 문화저서지 진행한 <가족의 이야기, 예술로 남다>는 천연염료 액자 꾸미기와 동반 에칭 작업을 통해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하는 시간이었다.

한 해의 끝에서 진행된 성과공유회는 '가갸호호'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속에서의 경험과 변화를 나누며, 문화예술이 일상에 남긴 흔적을 함께 확인했다. '가갸호호'는 거창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가족이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이야기를 꺼내는 작은 계기를 만들어왔다. 생활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이 문화예술교육은, 오늘날 가족을 잇고 내일의 공동체를 준비하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남았다.

가족, 함께 하는 시간 서로를 부르는 작은 예술



01 기억을 담은 사진

| | |
|------|--|
| 기간 | 2025.06~07 (총 4회차) |
| 대상 | 일반가정, 공동체 가족(이웃, 동료, 친구 등) |
| 장소 | 영월드어울림센터 |
| 모집인원 | 총 24명(기수별 3가구 12명) |
| 강사 | 유병현, 문지혜 |
| 활동내용 |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을 돌아보고, 사진으로 재연하여 기록 활동1. 옛사진 감상 및 사진 속 이야기 듣고 각자의 감정 나누기 활동2. 장소 답사 및 사진 촬영 활동3. 참가자와 함께 사진 감상 |



02 인생은 아름다워

| | |
|------|---|
| 기간 | 2025.06~07 (총 8회차) |
| 대상 | 일반가정, 공동체 가족(이웃, 동료, 친구 등) |
| 장소 | 사소한기록소 |
| 모집인원 | 총 48명(기수별 3가구 6명) |
| 강사 | 박리리, 김현진 |
| 활동내용 | 부부의 인생터널 팜업북 만들기 활동1. 부부가 준비해온 사진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누기 활동2. 터널 팜업북에 사진을 붙인 후, 내지를 다양한 재료로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꾸미기 활동3. 부부만의 추억 이야기 글쓰기 활동4: 표지에 제목과 지은이 등 쓰고 완성 |



03 옆집사람

| | |
|------|---|
| 기간 | 2025.08~12 (총 3회차) |
| 대상 | 공동체 가족 |
| 장소 |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 |
| 모집인원 | 총 30명(기수별 5가구 10명) |
| 강사 | 박은서 |
| 활동내용 | <p>나의 추억, 너의 향기</p> <p>활동1: 서로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이야기 나누기 활동2: 이야기 바탕으로 향기 조향하기</p> <p>향기나는 마음 전하기</p> <p>활동1: 상대를 떠올리며 향기와 메시지를 담은 향기 만들기 활동2: 만든 제품을 이웃 또는 가족에게 전달하기</p> <p>오늘의 향기로 나를 전합니다.</p> <p>활동1: 오늘의 나를 표현하는 단어를 나누고, 그 느낌을 향기로 조향 활동2: 제작된 디퓨저에 짧은 메시지를 담아 서로 교환</p> |



04 하나의 마음

| | |
|------|---|
| 기간 | 2025.08 (총 4회차) |
| 대상 | 다문화 가정 |
| 장소 | 아르코공연연습센터@영월 |
| 모집인원 | 총 10명 |
| 강사 | 천정희 |
| 활동내용 | <p>난타 이해와 해석(기본 가락 8박자)</p> <p>난타북을 이용하여 감정표현</p> <p>세계 여러 전통음악에 맞춰 가락 치기</p> <p>메시지가 담긴 노래에 가락을 더하여 연주하기</p> |



05 농촌의 선율

| | |
|------|--|
| 기간 | 2025.06~ (총 20회차) |
| 대상 | 공동체 가족(이웃, 동료, 친구 등) |
| 장소 | 영월문화예술회관 2층 소회의실 |
| 모집인원 | 총 10명 |
| 강사 | 변선희, 박희진 |
| 활동내용 | <p>[기타]</p> 기본자세 및 스케일 익히기 기본코드와 스트로크 주법 배우기 연습곡을 통해 스트로크 주법 연습 연주곡을 통해 타브악보 연주 악기별 악곡 연주법 학습 앙상블 활동을 통한 연주실습 |



| |
|---|
| <p>[가야금]</p> 기본자세 및 음계 익히기 음계익히기 및 기본주법 다양한주법을 활용한 악곡연주 쉬운 동요 연주 왼손주법 연주 익히기 앙상블 활동을 통한 연주실습 |
|---|

06 소리로 엮는 우리 이야기 "한소리"

| | |
|------|--|
| 기간 | 2025. 10 ~ 12 (총 8회차) |
| 대상 | 공동체 가족 |
| 장소 | 영월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 2층 |
| 모집인원 | 총 10명 |
| 강사 | 서기만, 윤형숙 |
| 활동내용 | 장구놀이-설장구 장단 배우기 - 민요가사 만들기 - 솟대 만들기 - 청사초롱 만들기 - 내가 만든 작품 전시하기 |



07 오감놀이터

| | |
|------|---------------------------------|
| 기간 | 2025.06~08 (총 8회차) |
| 대상 | 육아 가정 |
| 장소 | 덕포생활문화센터(공동육아나눔터), 아르고공연연습센터@영월 |
| 모집인원 | 총 40명(기수별 5가구 10명) |
| 강사 | 최소연 |



| | |
|------|--|
| 활동내용 | <p>오늘 밤 나는 무슨 꿈을 꾸까요?</p> <p>활동1. "꼬마 손님과 꿈사탕 가게" 그림책 감상 후 꿈을 주제로 가족간의 이야기 나누기</p> <p>활동2. 참여자가 꿈사탕 재료를 모형지폐로구매해 나만의 꿈사탕 스킨시 만들기</p> <p>활동3. 만든 꿈사탕을 소개하기</p> <p>손이 닿는 순간, 가족이 됩니다.</p> <p>활동.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손손손" 그림책 감상하며 나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공유하기</p> <p>활동 2. 보호자와 함께 서로의 손바닥에 물감을 발라 캔버스에 주제로 맞게 표현하기</p> |
|------|--|

08 꿈꾸는 작은 발레리나

| | |
|------|---|
| 기간 | 2025. 10 ~ 12 (총 7회차) |
| 대상 | 공동체 가족 |
| 장소 | 아르고공연연습센터@영월 |
| 모집인원 | 총 10명 (5가구) |
| 강사 | 강희은 |
| 활동내용 | <p>발레랑 친해지기</p> <p>기본동작 익히기</p> <p>한발 균형잡기</p> <p>음악에 맞추어 포지션 익히기</p> <p>호두까기 인형 작품 직접해보기</p> <p>요정들의 행진곡 작품 직접 해보기</p> |



09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

| | |
|------|--|
| 기간 | 2025.07 (총 3회차) |
| 대상 | 장애 가정 |
| 장소 |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
| 모집인원 | 총 18명 (기수별 3가구 6명) |
| 강사 | 송지현, 김종국, 유지선 |
| 활동내용 | <p>나만의 향기를 찾아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나만의 향수 & 방향제 만들기 <p>자연속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함께 꽃, 식물 등을 만지고 향기를 맡으며 원예테라피 작품 만들기 <p>우리를 위한 작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가 아닌 함께 작품을 이해하고 창작하여 공예품 만들기 |



06 소리로 엮는 우리 이야기 "한소리"

| | |
|------|--|
| 기간 | 2025. 11 (총 10회차) |
| 대상 | 장애 가족 |
| 장소 | 영월군장애인복지센터 |
| 모집인원 | 총 50명 (기수별 10명) |
| 강사 | 경효진 |
| 활동내용 | <p>베이킹의 공정 과정 함께 알아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을 활용한 베이킹 - 촉각을 활용한 베이킹 |



그날의 햇살,
손에 닿았던 나무의 온도,
복을 치며 터뜨렸던 웃음소리,
그리고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던 시간들.
이 프로그램은 단지 무엇을 만들거나 배우는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가족을 다시 바라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다른 배경의 가족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구는 색으로,
누구는 소리로,
누구는 손끝의 감각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모든 감정의 조각들이 모여,
우리 동네에 '함께한 기억'이라는 이름의 작은 정원을 남겼습니다.





참여 가족들의 마지막 메시지

“향기 말을 때마다 오늘이 기억날 것 같아요.” - [조향 참여자]

“말은 부족해도 목소리로 마음을 전했어요.” - [다문화가정 참여자]

“사진을 보며 가족끼리 오랜만에 '우리 얘기'를 했어요.” - [기억사진 참여자]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 영월에서 시작된 작은 연극의 씨앗

꿈의 극단 '영월'



2025 꿈의극단 <연극특!상상특!>

2025. 09-12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영월문화관광재단
후원 영월군



영월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상호협력(MOU) 체결

지역의 시간과 사람, 그리고 무대 위의 상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2025 꿈의극단<영월>예비거점 프로그램 운영 성과」

지역의 시간과 사람, 그리고 무대 위의 상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꿈의극단 예비거점 프로그램은 조용히 막을 올렸다. 이 사업은 연극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2026 꿈의극단 <영월>’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한 사전 단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월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적 자원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를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

꿈의극단 예비거점 프로그램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토대로 한 영월형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삶과 지역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아동·청소년 참여를 확대해 문화향유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정은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민과 귀촌민, 지역 예술인, 타지역 단체가 연극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협력하며, 지역의 문화자원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 세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이야기를 공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창의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또한 이 사업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꿈의극단’ 운영체계 기반 조성이었다.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교육청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MOU 체결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단계적인 사업 추진을 넘어, 향후 ‘2026 꿈의극단 <영월>’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 동시에 청소년 참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와 사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청소년들이 연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의 참여를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은 프로그램의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전 프로그램은 총 5회차로 구성되어, 연극을 관람하고, 만나고, 체험하며, 스스로 표현해보는 단계적 경험을 제공했다. 1·2회차 사전 프로그램은 10월에 극단 치약무대와 함께한 연극 관람으로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은 XXL레오타드와 안나수이 손거울을 관람하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온몸으로 마주했다. 11월에 연달아 연극 속 배우와 연출가와의 만남이 이어졌고, 프리토킹

과 연극놀이를 통해 작품 속 장면과 감정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해진 해석을 듣는 대신, 각자가 느낀 장면과 질문을 이야기하며 연극을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경험이였다. 3회차에는 11월에 막을 올렸던 지역 극단 시와별의 <백월팔래터> 공연을 관람했다.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통해 참여자들은 무대와 자신의 삶 사이의 거리를 한층 좁힐 수 있었다. 공연 이후에는 작품 속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간단한 연극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야기는 관람에서 멈추지 않고, 참여자의 몸과 목소리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 4회차는 12월 진행하였던 지역 극단 배정미와 함께한 ‘극장에서의 하루’였다. 참여자들은 공연장을 직접 투어하며 배우와 스태프, 음향, 조명, 무대감독 등 연극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가까이에서 체험했다. 무대 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역할과 협업의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이후 각자가 역할을 맡아 짧은 극을 제작하고 공연하며, 연극이 공동의 작업임을 몸으로 느꼈다. 이 경험은 연극을 보는 시선을 넘어, 만드는 시선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5회차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주전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 ‘꿈의극단’ 예술감독민 이재원 감독과 함께한 오픈설명회로 마무리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연극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꿈의극단’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나 나누어졌다. 참여자와 보호자, 지역민이 함께 모여 질문을 나누고, 앞으로의 ‘꿈의극단 <영월>’이 어떤 공간이 될지 상상해보는 시간이었다. 설명회는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를 넘어, 연극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장이 되었다.

꿈의극단 예비거점 프로그램은 짧은 기간의 시범사업이 아니라, 과정을 축적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 연극을 매개로 청소년의 감각을 열고, 지역의 이야기를 발견하며, 관계와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연극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문화라는 점을 경험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이 모든 시간은 ‘2026 꿈의극단 <영월>’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다. 무대 위의 이야기와 무대 아래의 일상, 청소년과 지역, 예술과 교육이 서로를 비추며 연결되는 자리. 꿈의극단 예비거점 프로그램은 그 첫 장면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남겼다.